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시편 42:1-11, 히브리서 12:1-13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난다.

- 1. 평상시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 (1)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으므로, 무거운 짐과 옛 체질을 버려야 한다.
 - (2) 예수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다.
 - 2. 문제 왔을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 (1)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지 않고, 말씀을 담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
 - (2) 그러나 모든 문제는 갱신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징계다.
 - (3) 징계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면 큰 열매가 오게 될 것이다.
- 결론 : 예수를 바라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개인, 현장)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자의 마음을 열고 위에서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불신앙의 쓴 뿌리와 잘못된 것들, 잘못 체질된 것들이 다 주의 말씀으로 씻겨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세기 초에, 영국의 어느 청년이 예배를 드리고 갔다. 아직 차가 없을 때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자기 교회로 가면 예배시간에 맞출 수 없겠다 싶어서,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가게 되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오신 것이다. 그래서 평신도 한 명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도 겨우 읽는 분이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참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청년이 눈 내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벽력같은 소리가 들렸다.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이분이 소리지른 것이 이 청년에게 청천벽력같이 들렸다. 그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청년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 전도자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 이분이 19세기를 풍미한 설교의 왕자 스펄전(Charles Haddon Spurgeon) 목사님이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증거가 없어서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스펄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란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이 응답을 받은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얼마나 많았나. 그 외에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다. 오늘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하셨다. “우리가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우들이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란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두 가지 상황을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겠다.

1. 평상시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라.

첫 번째는,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1) 성경의 말씀이다. 오늘 히2:1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인생이라고 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믿음의 증인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마라톤 선수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선수들은 가능한 한 벗어 버린다. 아주 가벼운 옷을 입고, 가장 가벼운 신발을 신는다. 짐을 바리바리 짚어지고 뛰는 사람은 없다. 영국에서 지금 디 오픈이 진행되고 있는데, 별명이 마라톤 경기다. 선수들은 그냥 걸어가지만 캐디들은 무거운 짐을 다 짚어지고 간다. 그러나 경기에 제대로 뛰는 사람은 짐을 벗고 가는 법이다.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한다. 오늘 1절에 뭐라고 했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라.” 평상시에 우리가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썩어져 가는 구슬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 버려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벗어 버려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우리를 얽어매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볍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응답이다.

(2) 중요한 것이 3절에 나온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참사랑 가족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란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

시기 바란다. 인생길을 달려 경주를 하는 동안 승리할 열쇠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데에 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 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시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참 제사장이시다. 나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운명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온전하게 된다.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
 - ②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피 흘리신 결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것이다. 언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나? 평상시에. 늘 그것을 계속해야 한다.
 - ③ 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이라고 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저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다. 어떤 주경학자는, 이 한마디만 보고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고 주석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것도 감히 억울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원망도 불평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또 한평생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한다. 혹시 피곤하여 낙심하게 될 때 속지 않도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다가,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 지난주에 우리 단체의 목사님들은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성도들은 알지 못하지만, 한기총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당신들은 잘못된 게 없다. 이단이 아니다.” 그런 선포를 했다. 그래서 고맙다고 성명도 내고 그랬는데, 다시 말을 바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장난을 해서, “우리가 검증해 보니까 검증위원들은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큰 교단들에서 이단 결의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한기총이 이단 풀어줄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엉뚱한 말을 한 것이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왜 그런 장난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밤잠을 못 자고 소리도 지르고 뒹굴었다. 다시 임원회가 모이고 실행위원들이 모였다. 사실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우리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조사를 다시 해서 이단이 아님을 증명하면 그때 왜서 확실히 선포하고 끝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도자가 생각을 한 것인데, 정치 세력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중심은 바르게 가야 하는데,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버리니까, 이 지도자분이 “어, 그러면 내가 잘못됐네?” 이라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한기총과 한교연이 우리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라 자기들 교린 싸움 때문에 나뉜 것인데, 우리한테 그 핑계를 돌리는 것이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나뉜 것인데 우리는 합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서 잡고 싸울 수도 없고, 교회가 왜 이러나 싶다. 한국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다. 교회는 줄어가고 있고 무슬림은 세력을 점점 더해가며 한국을 삼키려고 한다. 이단이 계속 일어나서 교회를 침범하려 한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왜 이러나 싶어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참 고마운 분들이다. 그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에 더없이 감사하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죽는 것은 상관없다. 목사 면직 제명 출교를 시켰는데, 그것도 불법이다. 우리는 이미 탈퇴했는데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를 면직시켰나.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뿐이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돈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심지가 굳은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바른 판단과 대우를 하실 것이라고 했던 욥의 마음이 너무도 절실하다. 이번 주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란다. 세상 말 듣지 마라. 다른 것 보지 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문제는 끝이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아니면 그 험악한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2. 문제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라.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상시만 있는 게 아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특별한 위기를 당할 때가 있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란다. 시편 42편 본문이 그것이다. 문제 만났을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시기 바란다.

(1) 그러면 문제가 왜 오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계획이 있는 경우도 있지

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경우도 많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오늘 이야기 하고 있다.

①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순교까지는 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주 말씀에서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하라고 했는데, 옛 체질과의 영적 싸움이 치열하지 않으니 까 문제가 오는 것이다.

②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다.” 문제 오는 이유가 이것이다. 옛 체질을 못 버리는 이유가 이 부분이다. 말씀이 마음 속에 담기지 않았다는 말이다. 우리에게 항상 말씀이 있어야 한다. 시119:11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실패하지 않는다. 오늘 정말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한다.

(2) 우리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5절에,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갖길로 자꾸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니? 정상적인 부모라면 반드시 아이를 붙잡을 것이다. 그래도 또 자꾸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니? 혼을 내고 아단을 쳐서라도 아이를 멈춰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함, 옛 체질 때문에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방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히12:8에,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최고 축복과 응답의 발판이 된다. 갱신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3) 그러면 징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낙심하지 말고 갱신하라. 10절에 말씀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징계를 주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받으면 되는가?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문제는 연단의 기회가 되고 훈련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복음을 더 굳게 붙잡고 갱신하면, 영적 성장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한다. 문제가 오면 우리는, ‘내가 또 뭘 잘못했나?’ 하는 율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대부분 그런다. ‘내가 뭘 잘못된 게 있나,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내가 또 뭘 열심히 안 했다. 십일조를 못 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은 종교적인 생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는 복음을 붙잡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전도의 문을 보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라. 문제 만났을 때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란다.

말씀을 마치겠다. 언젠가 내가 어느 성도님의 가정에 갔다. 집을 샀다 해서 갔는데, 3층집이었다. 나무사열을 해 보자 하면서 돌아봤는데, 지하도 있었다. 그때는 연탄을 뿔 때인데, 연탄이 한쪽에 쌓여있고, 그 바닥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다. 그 위에 돗자리가 있고 그 위에는 붉은 십자가를 달아 놓았다. 그 벽에 보니까 많은 기도제목들이 붙어 있었다. 그 돗자리 위에 방석이 또 놓여 있었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분의 아버지는 경찰 간부였다. 그러니까 6.25가 되었는데, 경찰은 잡히면 제일 먼저 죽지 않나. 그래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일하면서 쫓겨다니는데, 그때 이분은 어린아이였다.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려고 보니까, 어머니가 흙 위에서 가마니를 깔고 엎드려서, “하나님여, 이 민족을 붙잡고 여겨 주옵소서. 아이들 아버지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을 본 것이다. 어떤 때는 부엌에서, 어떤 때는 화장실에서. 자기도 성장하면서 위기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니까, 본 그대로 자리를 깔아서 엎드려 기도하게 된 것이다. 금년 주제가, 각인시키자는 것이다. 작년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자 했는데, 올하는 전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예 각인시켜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주제를 정하고 인도받고 있다. 각인을 시키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보여주어야 한다.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정말 우리 부모님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보게 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불신앙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라. 사람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 전 교우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바라보셔야 한다.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지구 한복판, 완전히 타락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생을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닌가. 그 몸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속량물이 되셨으며, 그 십자가로 원수의 머리통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 어떤 설교자가 외쳤다. “맨날 실패하고 맨날 불신앙하는 부모를 바라보지 마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서밋이 되어서 네 부모를 살려라. 이 시대를 살리는 사명자가 되라!”

오늘 12, 13절이 결론이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반드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평상시에 예수를 바라보고, 문제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한다.

(1)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기도가 안 되는 나의 영적 상태를 뒤집어야 한다. 다시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규례를 만들어야 한다. 기도로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시기 바란다. 소리를 내어도 좋고 묵상해도 좋다. 아예 부르짖는 것도 정말 좋다. 무릎을 꿇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깊이 호흡하면서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개인 시스템을 반드시 찾으시고 마련하시기 바란다. 교회가 제일 좋다. 1층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근처 직장 다니는 분들도 와서 기도하더라.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기 바란다.

(2)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우리 자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되도록, 함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도록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복음메시지를 암송시키던 분들은 다시 시작하라. 잊어버리고 있다. 몇 번 하고 나면 잊지 않는다. 학습 효과는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상기시켜야 나타난다. 들은 것은 4시간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한다. 그래서 4시간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암송해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내가 어느 제직수련회에 가서 복음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놀라는 투로 이야기했다. “최목사, 당신은 성경을 다 외우네?” 성경에 있는 복음메시지와 관련된 것만 했을 뿐인데 그렇다. 분발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각인시키시기 바란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지속하라. 그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방향을 기도하면서 찾아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열매를 주실 것이다.

여름은 훈련의 계절이다. 이제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고, 다음 주부터는 램턴트 훈련이 계속된다. 예수를 바라보는 최고의 기회로 삼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다가, 인생의 큰 답을 체험하는 집중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한다. 이번에 바 누이투에 헌금을 하고, 모은 구제품도 보냈는데, 이것을 황상배 목사님이 가서 전달했다. 대통령이 그것을 알고 집무실에 초청을 했다.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설명했다. 우리는 어떤 단체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꼭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그것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다. “이번에 큰 대회가 있다던데, 우리가 좀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의견을 담당하는 분과 중요한 분들이 다 오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놀라 버렸다. 초청한 것이 아니니까 돈은 못 드리지만 경호는 정부에서 다 해 주기로 했다. 이 분들이 얼마나 열심인가 했더니, 통일교에서 와서 돈을 뿌리고 뭘 하려고 했는데 딱 거부했다. ‘우리 국민을 살리는 길은 복음이다,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하고 거절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 WRC(세계램턴트대회)에 대통령과 각료 몇 분이 오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인디언 선교하는 분들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훈련을 받고, 중국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이번 여름 동안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다가, 정말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해가는 세상, 타락한 인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여름 훈련 기간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다가, 스피럴 목사님처럼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여름에 메르스를 다 물리쳐주시옵소서. 남북의 상황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사단의 체계는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민족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속히 이 민족이 하나되어 세계복음화의 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과 한국 교회가 정치와 세속에 휘말리지 말고, 맘몬에 휘말리지 말고, 주님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다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손 들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망해가는 아시아와 세계를 복음화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